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바屡상에 가증되지 못했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은 최근 건축물에 적용되어 방문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상반된 개념들을 하나의 공간으로 아우르다

Wyspianski 2000

Architect / Ingarden & Ewy Architekci(+48 12 632 80 10)
Interior design / Ingarden & Ewy, Agnieszka Łaska, Marta Spodar
Structure / Jan Grabacki, Biuro Konstrukcyjne s.c.
Client / The City of Krakow and the Foundation 'Wyspianski 2000'
Site / All Saints Square, Krakow
Total Floor Area / 644m²
Site Area / 297m²

일반적인 벽돌 사용법과 달리 철 프레임을 활용해 벽돌을 수직적으로 적용하였다.



벽면을 가로지르는 블랙의 패널이 자연스러운 동선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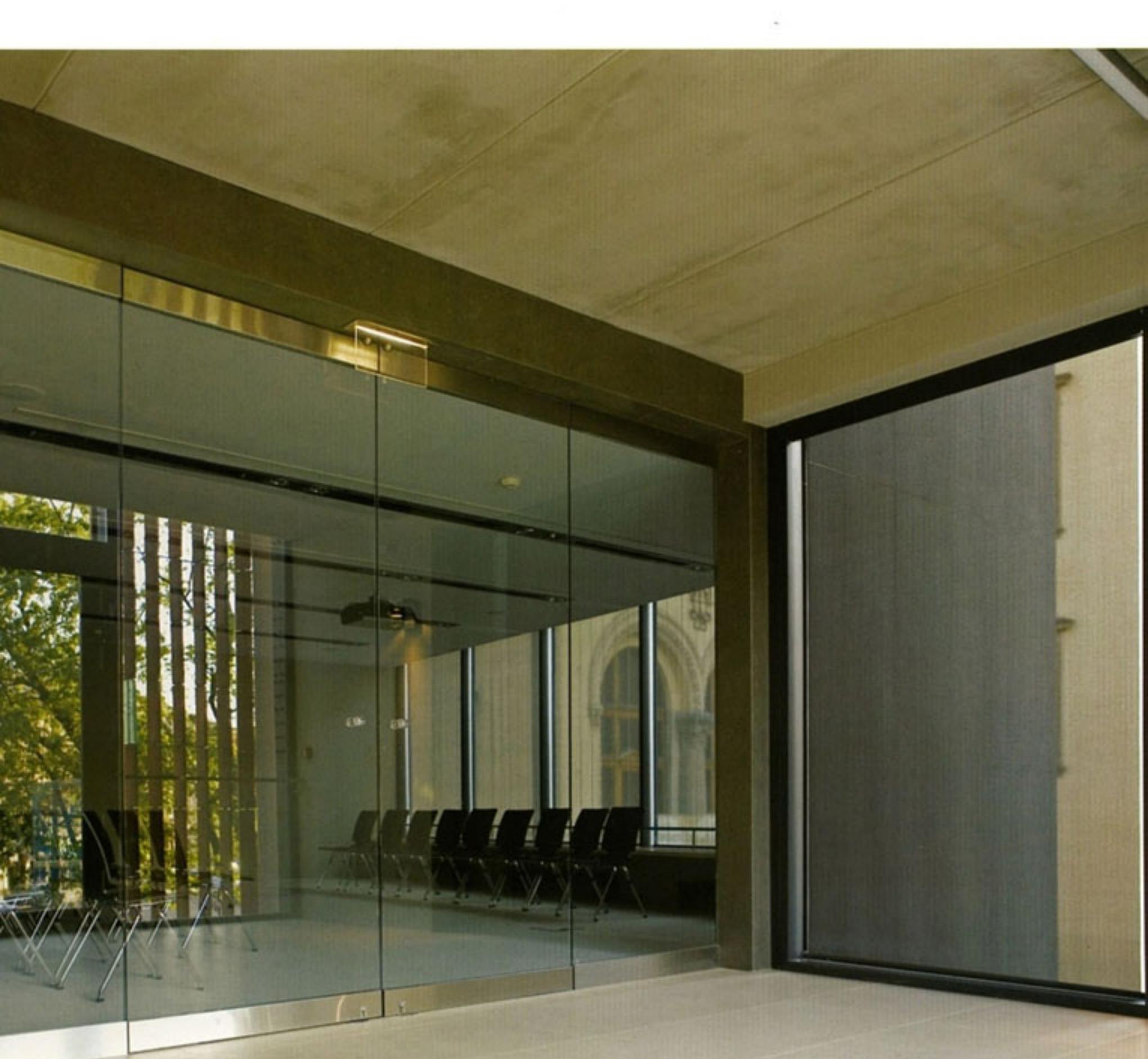
폴란드의 옛 수도 크라쿠프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12대 유적지로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올 여름 이곳에 크라쿠프 안내 및 전시센터 'Wyspianski 2000'이 완공되었다. 프로젝트는 1998년 설립된 건축업체 Ingarden & Ewy Architekci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Ingarden & Ewy Architekci의 공동대표 Krzysztof Ingarden과 Jacek Ewy는 'International Airport in Wroclaw', 'Polish Pavilion Expo 2005' 등의 감각적이고 인상적인 건축물들을 통해 젊지만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건축가들이다.



스테인드글라스 작품들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무채색공간에 화려한 컬러감을 부여한다.



각각의 계단마다 배치된 조명들이 방향성을 나타낸다.



회의를 위한 공간은 모던한 컨셉트를 통해 실용적으로 디자인 되었다.

이처럼 영향력 있는 건축가들에 의해 완성된 건축물에는 폴란드의 대표적인 예술가 Stanislaw Wyspianski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들이 적용되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 작품들은 본래 100여 년 전 바벨성에 기증될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당시에는 이 같은 혁신적인 디자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이 곳에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를 소개하는 기능을 지닌 건축물은 스테인드글라스 작품 전시라는 부가적인 역할을 지니게 되었으며 개방적이고 밝은 공공장소의 특성과 함께 스테인드글라스가 돋보일 수 있도록 조용하며 어두운 공간 분위기가 동시에 요구되었다.

더불어 중앙광장과 바벨성 사이의 왕실도로에 근접해 있는 이 지역에는 역사적인 유물들로 둘러싸여 현대적이면서도 주변 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Ingarden & Ewy Architekci는 열린 공간과 닫힌 공간, 전통과 현대라는 상반된 개념을 모두 아우르는 공간을 만들어야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1m에 달하는 철제에 전통적인 재료인 벽돌을 매다는 방식을 고안했다. 이는 보통 수평적으로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올리는 것에 반해 벽돌을 수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줄에 일렬로 벽돌을 매달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주변 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외관 형태를 갖게 되었다. 또한 조절이 가능한 각각의 유닛은 필요에 따라 개폐가 가능하여 밝고 어두운 공간을 모두 연출할 수 있으며 벽돌 표면에 크고 작은 꽃무늬를 새겨 웅장함 속에서 아기자기한 매력까지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창의 일부분만 오픈하여 공원의 핵심이 되는 동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내부는 카페와 전시가 이루어지는 지하층, 전시와 안내가 이루어지는 1층, 회의실이 위치한 2층, 오피스공간이 위치한 3층으로 이루어진다. 건물의 중심이 되는 기다란 직사각형태의 전시 공간은 1층부터 3층까지 오픈된 구조를 지니며 시원스레 공간을 가로지르는 계단부가 각각의 층을 연결함과 동시에 중요한 오브제 역할을 한다. 또한 이들은 별도의 지지대 없이 측면의 벽 면만을 의지하여 부유하는 듯한 느낌으로 설계되었는데 각각의 계단마다 일렬로 배치된 조명은 방문자의 안전을 고려함과 함께 단조롭지 않은 매력을 발산한다. 이와 같은 현대적인 형태와 함께 전시공간의 바닥, 천장, 벽체를 모두 그레이컬러로 동일하게 마감하여 전체적으로 모던한 컨셉트를 지닌 실내는 벽돌들 사이로 비추는 햇살과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흘러 들어오는 은은한 빛깔이 더욱 멋스러운 공간을 연출한다.

또한 수직의 벽돌들과 사선의 계단부 등 전체적으로 직선의 느낌이 강한 이 공간에서는 곳곳에 적용된 부드러운 곡선 형태를 찾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우선 건물의 양쪽 부분이 곡선으로 마무리된 것을 볼 수 있으며 굽이치는 파도와 같은 역동적인 형태의 테이블은 공간 한편에 위치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지하에 위치한 커다란 원형의 안내 데스크는 그 자체로 조형적인 오브제가 된다. 자연채광이 어려운 지하공간은 위의 1, 2, 3층과 달리 은은한 간접조명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불규칙적인 벽돌 마감은 오랜 세월에 의해 파손된 듯한 멋스러운 공간을 표현한다.





불규칙적인 벽돌마감은 오랜 세월에 의해 파손된 듯한 멋스러운 공간을 표현한다.



역사적인 유물들을 통과했던 건축물은 현대적인 감각을 유지한 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



공간을 가로지르는 계단부가 마치 부유하는 듯 디자인되어 내부를 장식하는 오브제가 된다.

높은 천장과 지난 공간은 스테인드글라스 전시에 더욱 적합하다.

1998년 디자인 컨셉트 설정 단계를 시작해 오랜 기간을 걸쳐 완성된 Wyspianski 2000를 통해 우리는 전통을 발전시켜나가는 폴란드인들의 특성을 만나볼 수 있다. 현대식 건물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거리 모습. 그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의 모습을 고수 할 것이며 많은 관광객들은 이러한 매력에 끌려 크라쿠프를 방문할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그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또 하나의 역사적인 건축물을 완성하는데 있어서 전통만을 고집하는 외골수의 모습이 아닌 혁신적인 방법으로 전통과 현대의 연결통로를 찾는 열정적인 모습을 선보였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완성된 새로운 형태의 벽돌연결 방법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하나의 공간에 밝고 어두운 두 가지 연출이 가능하며 모던함 속에 부드러움이 녹아 있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했다. 상반된 개념들이 각각의 특성을 지닌 채 공존하고 있는 Wyspianski 2000이 폴란드의 문화를 발전시키며 또 하나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



간단한 물건들을 옮겨놓을 수 있는 타이틀은 이동방향이 서로 다른 균형력을 자연스럽게 구분한다.